



기고 김 유 섭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예방홍보팀장

안전한 추석 명절 보내기

길고 긴었던 폭염이 지나가고 상쾌한 가을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요즘, 온 가족이 함께하는 풍요로운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가장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추석 명절 기간이면 전기·가스에 의한 화재는 비롯하여, 식중독, 벌 쏘임 피해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따라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즐거운 추석연휴를 보내기 위해 몇 가지 안전수칙을 전달한다.

우선 추석 연휴 장기간 집을 비울 경우 전기·가스에 의한 화

재의 우려가 있다.

집을 나서기 전에는 전기 코드를 반드시 뽑은 후 재차 확인하고 가스 밸브도 잠겼는지 확인해야 한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에 따른 전기합선과 누전 등의 원인으로 빈집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리고 집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면 바로 창문을 열어 누설된 가스를 밖으로 신속히 배출시키고 가스관리업체 등에 연락해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요령이다.

다음으로 추석은 식중독 위험 시기니 주의하도록 하자.

추석에는 낮 기온과 밤 기온이 평균 10도 이상 차이 나는 큰 일교차로 인해 음식이 상하기 쉬우며, 많은 양의 음식이 만들어지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식중독의 위험률이 높아진다.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선 조리 전 손과 식재료를 깨끗이 씻어야 한다. 또한 음식물 낭비를 막고 장기간 보관에 의한 식중독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만큼만 만들고 조리할 때 익힌 재료와 익히지 않은 식재료를 구분해야 한다.

또한 갈과 도마 등 식기들도 따로 사용해 교차오염을 방지한다.

다.

마지막으로 추석을 앞두고 많은 벌초 성묘객이 예상됨에 따라 야외활동 시 벌에 쏘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벌 쏘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건이나 손으로 벌을 건드리지 말고 벌을 자극하는 짙은 향의 화장품이나 화려한 색깔의 옷은 피해야 한다.

혹시 벌에 쏘였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카드 등을 이용하여 벌집을 제거해 심한 알레르기 반응의 진행을 막아야 한다.

체질에 따라 과민성 쇼크에 의한 호흡곤란 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119에 신고하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치료받도록 한다.

평상시보다도 화재·구조·구급 등 유난히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추석 연휴, 안전사고는 우리 주위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안전수칙 숙지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자.

올 추석 연휴 기간에는 한 건의 사고도 나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건강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길 기원해 본다.

社 說

‘실업급여 역대최대’라니...

실업자가 8개월째 100만 명을 웃돌고 8월 취업자는 단 3000명에 그치는 ‘고용참사’가 이어지면서 직장을 잃고 길거리에 내몰려 고통에 떨어야 했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의 끔찍한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특히 자식 세대와 부모 세대가 동시에 일자리를 잃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실업의 고통이 대를 이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9년부터 올해까지 발표한 고용동향 분석 결과 8월 기준 대부분 연령대의 실업자 수가 20년 사이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대 실업자 수는 40만8000명으로 48만1000명을 기록한 1999년 이후 처음 40만 명대를 넘어섰다. 30대 실업자 수는 21만5000명으로 20만 5000명을 기록한 2011년 이후 7년 만에 다시 20만 명대를 넘어섰다. 40대 실업자 수는 18만6000명으로 27만1000명을 기록한 1999년 이후 20년 만에 다시 20만 명대에 육박

하고 있다.

특히 20년 전 외환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던 50~60대의 실업자 증가 폭은 더욱 심각하다. 50대 실업자 수는 19만2000명으로 15만 8000명을 기록한 20년 전보다 3만 4000명 더 많다. 60대 이상 실업자 수는 10만6000명으로 20년 전(4만 명)보다 165%나 증가했다.

이의 영향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이들도 세대를 가리지 않고 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의 실업급여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7월 기준 20대 수급자 수는 5만3449명으로 고용정보원이 연령별로 실업급여 지급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수급자 수는 9만4081명으로 9만5922명을 기록한 2015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실업급여 역대 최대라는 슬픔이 한시바빠 극복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등에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개인 위생관리 및 호흡기 질환 예방법

폭염과 장마 등이 지나가는 가운데 저녁에 날씨가 쌀쌀해져가고 있다.

새벽일 경우에는 취침 중에 온도가 떨어져 상기도 감염 등 호흡기 질환에 119를 찾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침, 가래, 콧물 등 호흡기 질환의 환자인 경우 바이러스 침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또한 호흡기 질환은 외부의 공기를 차단하여야 한다.

전염이 될 수가 있기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야 하며,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난 뒤 충분한 수면 및 몸의 휴식이 필요하다.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나 노인층은 더욱 걸리기 쉬우며, 폐렴의 가능성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폐렴으로 인하여 열증 수치가 상승하여 고열이 발생하여 호흡곤란이 생길 수 있어 반드시 병원으로 내원을 하여 진료를 보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인플루엔자 감기와 다른 종류로 급

성 호흡기질환으로서 미열부터 고열, 오한, 두통, 근육통을 동반한 전신증상 또한 발생을 하게 된다.

사전에 예방법은 백신을 접종하기 위하여 겨울이 오기 전에 주변 병의원이나 보건소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난 뒤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호흡기 질환은 걸리기 전에 접종을 하듯이 손씻기 등을 습관화하여 본인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의 위생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닌 본인의 건강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위생관리가 되지 않아 호흡기 질환 등에 걸리게 된다면 타인에게도 전염이 될 수 있기에 사전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본인의 건강 및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기를 바라며, 어려움이 있을 시 119에 신고를 하게 되면 우리 구급대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응대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태현 /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노인 보호구역, 실버존을 아시나요?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져 대한민국도 어느덧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노인 교통사고율 역시 늘어나고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실버존은 교통약자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실버존이 시행된 지 11년째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무관심속에 실버존은 알지도 실버존은 모르는 운전자들이 많다.

실버존은 일반 도로에 비해 범칙금과 벌점을 2배로 부과하며 단속은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매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적용된다.

차량운행 속도는 30km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며, 30km를 초과하여 운행시 위반 속도에 따라 6만원에서 15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실버존에는 주정차가 금지되며, 노인 보호 표지판, 과속방지턱, 미끄러 방지시설 등이 설치된다.

실버존 현황을 살펴보면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노인 통행인구를 감안하면 약 7,000여곳의 실버존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지만 2018년 기준 1,457개소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스쿨존은 17,000여개로 스쿨존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통사고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버존을 확대해야 한다. 이에 운전자들이 실버존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뿐만 아니라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등 부속시설을 설치해 안전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아울러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규칙들도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실버존을 확대하여 노인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나태환 / 광주경찰청 1기동대 순경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故事成語

禪主云亭

선 임름 주
주 임름 주
운 운
정 정

▷ 뜻: 운(云)과 정(亭)은 천자(天子)를 봉선(封禪)하고 제사(祭祀)하는 곳이니, 운정(云亭)은 대산(泰山)에 있음.

湖南新聞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5층)
서울 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010-5330-553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계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민채(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독자의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를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